



세계의 에이즈

**"컴퓨터 바이러스 콘돔으로 예방?"**

데이터백업 업체인 지오이네트는 3월 22일부터 4일 간 서울과 인천, 수원 지역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인터넷 금고 서비스 전용 프로그램이 담긴 CD 3만개를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금고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원격지에 저장·보관해주는 서비스. 20MB 분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 지오이네트는 이 프로그램CD를 배포하면서 양철케이스에 콘돔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콘돔이 성병 균이나 악성바이러스로부터 신체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 컴퓨터바이러스나 조작 실수로 인한 데이터 손상을 예방하는 인터넷 금고 서비스 역할과 비슷한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에이즈예방협회도 지오이네트와 공동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이며 프로그램CD와 콘돔을 함께 배포한다고. (조선일보/2000/03/18)

**'금·은' 넣은 콘돔 나와 -코코실버 개발**

라텍스성분의 콘돔재질에 금·은 가루를 넣어 항균기능이 뛰어난 콘돔이 선보였다.

은제품 전문 벤처기업인 코코실버가 개발한 항균 금·은 콘돔은 성적 욕구도 높고 피임과 질병예방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시장에 5,000만 달러치를 수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2000/03/21)

**빌 게이츠, 에이즈 예방 5,700만불 내놔**

시련이 있어도 자선사업은 계속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부부가 아프리카 4개국의 에이즈 예방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5,700만달러(630억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유엔이 4일 발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 자금이 보츠와나,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의 25세 이하 젊은이들을 에이즈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아프리카 수십만 명의 젊은 남녀들이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2000/04/06)

**베를루스코니 前 伊총리 에이즈 환자비하 말쟁**

베를루스코니 전 伊총리는 오는 16일 지방 선거에 앞서 최근 시칠리아에서 야당 후보 지원 유세 중 "에이즈 환자는 땅 속에 묻히는 데 익숙해지려면 모래 찌질부터 받아야 한다"고 농담했다.

현 연정 지도자 발테르 벨트로니는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고통을 겪는 질병에 대해 그런 악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개탄했고, 게이 단체들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에이즈 사망자를 욕되게 하고, 에이즈 환자를 멸시하는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즈는 이탈리아 18~40세 남성의 첫번째 사망 원인으로, 지난해 이탈리아 국민중 1만 3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2000/04/07)

## WHO '매년 수혈로 50만 명 에이즈 감염'

매년 전세계적으로 50만 명 가량이 오염된 혈액으로 인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보건의 날인 7일 밝혔다.

WHO는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혈액'과 관련해 혈액 공급 및 유통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헌혈자들이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헌혈된 혈액을 수혈 이전에 철저히 검사할 것을 촉구했다.

WHO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자 560만 명 가운데 5-10%는 수혈과정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2000/04/08)

## 값싼 에이즈 감염 치료제 아프리카 대량공급

값이 싸고 널리 사용되는 한 항생제가 부작용 없이 에이즈환자들의 2차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HIV감염이나 에이즈 증세를 보이는 약 200만 아프리카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의 한 전문가가 7일 밝혔다.

유엔 HIV/AIDS 공동계획(UNAIDS)의 치료 자문관인 바다라 샘브 박사는 UNAIDS와 세계보건기구가 최근의 임상실험 결과를 근거로 폐렴치료제인 코트리모キサ졸(cotrimoxazole)의 사용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생충 원인 폐렴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이 약값의 일년 치 비용은 8-1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싸다. (연합뉴스/2000/04/08)

## "빈곤-AIDS-환경...21세기 인류숙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빈곤과 질병 퇴치, 분쟁 예방, 환경 보호 등이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유엔은 각국 정부 및 기업들과 합심해 세계적 차원에서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0년까지 에이즈(AIDS) 유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젊은이들을 지금보다 25% 감소시키고, 2015년까지 에이즈 확산 완전 차단을 위해 효과적이고 저렴한 에이즈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2000/04/ 11)

## 올들어 에이즈 감염자 59명 감염 추가 확인

국내 에이즈감염자가 지난 해 말 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들어 59명이나 추가로 확인됐다.

10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1-3월 3개월간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 59명 (여자 10명)이 추가로 확인돼 3월말 현재 전체 감염자 숫자가 1,122명(여자 148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중 14명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됐고 17명이 숨져 현재 생존해 있는 감염자는 환자 2명을 포함해 87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2000/04/11)

## 유엔, 남성 중심 에이즈 억제계획 시작

유엔은 남성들의 자각과 역할에 초점을 맞춘 올해 세계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계획을 6일 출범시켰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UNAIDS)은 남성들의 왜곡된 성 의식과 문화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음으로서 에이즈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남성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기 쉽고 콘돔 사용을 꺼린다"면서 "이 때문에 여러 여성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동시에 스스로도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2000/04/12)

## AIDS관련된 결핵균 일부 집단 유행

발티모어와 뉴욕 시에서 확인된 AIDS관련된 결핵균주가 성전환자 및 성도착자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의 보건관리들이 최근 전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는 1998년 이래 두 도시에서 상대의 성을 가진 것으로 행세하는 성도착자 집단 사이에서 26례의 활동성결핵과 37례의 잠복성 감염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DC는 이러한 집단감염의 일부로 확인된 결핵 환자의 62%가 HIV에 감염되어 있다고 밝혔다. HIV감염은 면역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핵과 HIV가 동반 감염된 사람들은 결핵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CDC는 밝혔다. (의협신문/2000/04)

## 중국 결혼남녀 에이즈검사 의무화

결혼을 앞둔 중국 남녀에 대한 에이즈검사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고 베이징신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생육계획(산아제한)연구소 발표를 인용, 이렇게 밝히면서 혼전 검사센터 소속의 의사 28명이 에이즈병원체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숙달훈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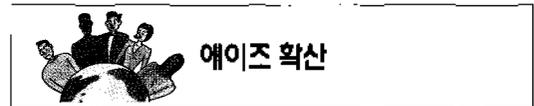
베이징시 시청구에 있는 모자보건소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에이즈검사를 실시해왔다.

중국에서는 99년말 현재 1만7천361명이 에이즈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677명이 여성이다. (연합뉴스/2000/04/27)

## 미국 에이즈를 “안보에 위협적 요인” 규정

클린턴 미 행정부는 30일 에이즈를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국제 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규정, 대응의지를 밝혔다. 미 국가안보회의는

전례가 없는 ‘전염병과의 전쟁’에 착수, 해외 에이즈 퇴치를 위한 예산을 2배 늘린 2억54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앨 고어 부통령은 지난 1월 유엔 연설에서 “21세기 첫 10년간 에이즈관련 사망자는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수와 맞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즈가 창궐한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에이즈로 사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제3세계에서 혁명전쟁, 인종 분쟁, 대량학살, 정부전복을 유발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선일보/2000/05/02)



## 중국, 에이즈환자 70% 증가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위생부는 3일 중국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에이즈(AIDS)환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HIV-2 감염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생부는 HIV 감염자가 지난해 4677명이 새로 발견돼 98년보다 41.5%가 늘어났으며 에이즈 환자는 지난해 전년보다 69.1%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위생부는 당국에 확인된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수가 지난해말로 총 1만7316명이지만 실제 HIV 감염자는 40만-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계의 에이즈 환자 대다수는 HIV-1에 감염돼 있으며 HIV-2는 변종이다. (연합뉴스/2000/04/11)



## 에이즈바이러스 침입 차단항체 발견

이탈리아 의료 연구진이 에이즈 바이러스(HIV) 침입을 막는 항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 라파엘 병원의 연구팀은 배우자가 HIV에 감염돼 있는 90명에 대해 4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상대 배우자에게는 없지만 연구대상자들 자신들은 갖고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고 의학잡지 '면역학 저널' 9일자 최신호에서 밝혔다.

연구팀의 루치아 로팔코 박사는 "이 항체는 면역체계 세포의 표면에 있으며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관문역할을 하는 CCR5 단백질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로팔코 박사는 이 항체는 아주 독특해 CCR5 단백질을 변경시켜 바이러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지 못하면 HIV에 대한 자연적인 예방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연구기금만 투자된다면 몇 년 내로 치료약 개발을 위한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오랜 연구과정을 거치면 인체 면역체계가 방어력이 있는 항체를

생산토록 자극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문을 찾아냈다고 해서 이 문이 바이러스의 유일한 통로인지 아니면 다른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00/04)

## 미연구진, 에이즈 유전자치료법 동물실험 첫 성공

유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에이즈 치료법의 동물실험이 처음으로 성공, 에이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미국의 유전자 및 인간치료연구소(RIGHT) 연구진이 3일 주장했다.

RIGHT 소속 연구원 리치비츠와 프랑코 로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7회 레트로바이러스 및 기회감염균 회의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개발한 치료법은 정상적인 생물체의 T세포(항체세포)에서 세포핵을 추출한뒤 이 세포핵들의 세포봉제 DNA를 조작해 다시 T세포에 대체해 넣음으로써 조작된 DNA의 염색체들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살해할 능력을 가진 특수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HIV 공격 T세포가 부작용 없이 일정기간(최대 3개월까지) 활발한 반응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새 치료법은 동시에 3-4종의 약물을 사용하는 콕테일 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2000/04) ④